

문장의 구조

개념 1 문장의 짜임새

가) 홑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꽃이 예쁘다.

그 집에서 오늘 돌잔치가 있어.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어.

- 절이 아닌 관형어나 부사어는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문장은 홑문장이다.
물론 독립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겹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진다.
- 겹문장에서 주어가 같거나 서술어가 같으면 동일한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될 수 있다.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야.

이 안개만 걷히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꽃이 피었다.

+

꽃이 예쁘다.

→

예쁜 꽃이 피었다.

↳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은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라는 홑문장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겹문장인데, 관형절(예쁜) 안에 있는 홑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 겹문장이 되는 과정

- ① 이어진 문장 : 홑문장과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② 안은문장 :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한 문장 성분이 되는 문장

문장의 구조

개념 2 이어진 문장

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개념 : 이어지는 홀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함.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은 뒤 절과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실현 : 대등적 연결 어미 ‘-고, -며’ (나열), ‘-지만, -나’ (대조) ‘-든지’ (선택) 등으로 실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나열

눈이 내리지만, 날씨는 춥지는 않다. - 대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나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대조)

•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놀이터에서 논다. (나열)

•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하다. (나열)

•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서 결정합시다. (선택)

• 함박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대조)

• 철약은 부자를 만드나, 철제는 사람을 만든다. (대조)

②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개념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임(국어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부사절로 볼 수 있다.)

실현 : 앞 절과 뒤 절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고’ (계기), ‘-(으)면’ (조건), ‘-(으)ㄹ지라도’ (양보), ‘-(아)서’ (원인), ‘-(으)려고’ (의도), ‘-는데’ (배경) 등으로 실현되거나, ‘-기 때문에, -는 가운데, -는 중에’ 와 같이 명사절, 관형절로도 이루어진다.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원인)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조건)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의도)

내가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배경)

설령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 (양보)



문장의 구조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 속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앞 절과 뒤 절에 같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다른 말로 대체되거나 생략된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앞 절이 뒤 절 속으로 이동)

나는 미명을 자주 만나지만, (그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로 대체하거나 생략)

- 국어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사절이나 관형절로 된 것도 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문장의 구조

개념 3 안은 문장

- 안긴문장 = 절 :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 ① 명사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함.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으)ㄴ → 완료의 의미, -기 → 미 완료의 의미]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 철수가 합격했음이 밝혀졌다. (주어 명사절)

• 나는 농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목적어 명사절)

- ② 관형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함.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 이루어짐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을/읽던> 책이다.

- 학교에 가는 철수를 보았다. (현재)
- 형사에게 붙잡힌 철수를 보았다. (과거)
- 학교에 가던 철수를 만났다. (과거 - 회상)
- 철수가 쓸 소설은 애정소설이다. (미래 - 추측)

- ③ 부사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아)서’에 의하여 이루어짐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

↳ 위 문장들에는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다.’, ‘아는 것도 없다.’, ‘그림이 아름답다’, ‘비가 오다’, ‘발에 땀이 나다’와 같은 문장들이 안겨 있는데, ‘-이’, ‘-게’, ‘-도록’, ‘-(아)서’에 의하여 부사절로 된 것이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 ‘-(아)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 부사형 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 ‘-이’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파생시키는 한정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 볼 수 있다. 또 ‘-게, -도록’은 부사형 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모두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이’가 ‘-게, -도록’과 함께 부사절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들 모두를 부사형 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때는 부사파생접미사 ‘-이’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문장의 구조

- ④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함.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다른 안긴문장과 차이를 보인다. (서술절을 안은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한다.)

정아가 얼굴이 예쁘다.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 이 책이 글씨가 너무 작다.

↳ 첫 문장에서 ‘얼굴이’의 서술어는 ‘예쁘다’이고, ‘정아가’의 서술어는 ‘얼굴이 예쁘다’이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인정이’의 서술어는 ‘많으시다’이고, ‘할아버지께서는’의 서술어는 ‘인정이 많으시다’이다.

- ⑤ 인용절을 안은문장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김 (통사상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직접 인용절

개념 :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는 것

실현 : 인용격 조사 ‘라고’가 붙어 이루어진다.

○ 간접 인용절

개념 :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 인용한 것

실현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난 간접 인용절에서는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로 나타난다.

규환은 당황한 어조로 "무슨 일이지?"라고 말하였다. (직접 인용절)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믿는다. (간접 인용절)
 그 사람은 자기가 학생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접 인용절)
 • 철수가 "선생님,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다
 • 형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하였다.

출제 Point

.....



문장의 구조

Step 1

1. EBSi <보기>를 참고하여 이어진 문장의 의미 관계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다.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질 때에는 연결 어미 '-고, -(으)며, -자'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질 때에는 '-지만, -(으)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부산은 따뜻하나 서울은 춥다.'는 '부산은 따뜻하다.'와 '서울은 춥다.'가 '대조'의 의미관계를 이루며 이어진 문장이다.
- ② '날이 더워지자 냉방 기체가 잘 팔렸다.'는 '날이 더워졌다.'와 '냉방 기체가 잘 팔렸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를 이루며 이어진 문장이다.
- ③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다.'는 '몸은 늙었다.'와 '마음은 젊다.'가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루며 이어진 문장이다.
- ④ '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는 '그는 공부도 잘한다.'와 '그는 운동도 잘한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를 이루며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이것은 사과이며 저것은 포도이다.'는 '이것은 사과이다.'와 '저것은 포도이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를 이루며 이어진 문장이다.

2. EBSi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된 문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때 ㉠선어말 어미 '-았-/-었-', '-겠-' 모두와 결합할 수 없는 연결 어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결 어미 '-느라고'는 선어말 어미 '-았-/-었-', '-겠-'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책을 산다. + 나는 용돈을 다 썼다.

→ 나는 책을 {사느라고, *샀느라고, *사겠느라고} 용돈을 다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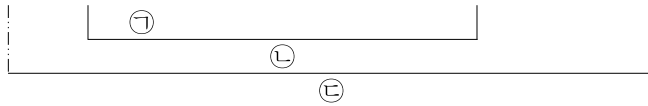
*는 비문법적임을 나타내는 표시임.

- ① 꽃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 ② 나도 자네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네.
- ③ 일찍 떠나려고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
- ④ 오후에는 배드민턴을 치러 체육관에 간다.
- ⑤ 이 시는 누가 읽더라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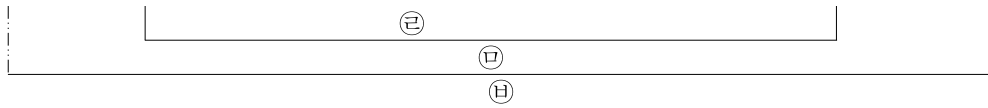
3. EBS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그는 [[내가 쓴] 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기]를 바라신다.]



- ① ㉠이 수식하는 명사는 주격 조사와 결합하였고, ㉣이 수식하는 명사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였다.
- ② ㉠과 ㉡의 주어는 동일하지 않지만, ㉣과 ㉢의 주어는 동일하다.
- ③ ㉠과 ㉣이 생략되어도 ㉡과 ㉢은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④ ㉡은 명사형 어미 '-음'과, ㉢은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이 되었다.
- ⑤ ㉡과 ㉢은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문 장 의 구 조

4. EBSi 제시된 자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탐구 내용
①	㉠ 동생은 경찰이 되었다. ㉡ 동생은 얼굴이 변했다.	㉠과 달리 ㉡은 서술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군.
②	㉠ 그는 눈이 오기 전에 떠났다. ㉡ 그는 눈이 오기를 기다렸다.	㉠과 달리 ㉡의 명사절에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 군.
③	㉠ 저 사람이 진범임이 확실하다. ㉡ 저 사람이 진범임에 틀림없다.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부사절이 안 겨 있군.
④	㉠ 형은 내가 늦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형은 내가 모르는 소식을 들었다.	㉠과 달리 ㉡의 관형절에는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로 쓰이는 말이 생략되어 있군.
⑤	㉠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	㉠의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하고 ㉡의 명사절 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군.

5.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1 명사절은 문장에 안기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 격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조사와 결합함.	㉠	㉡	㉢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	㉤	-

- ① ㉠: 형이 거짓말을 했음이 분명하다.
 ② ㉡: 그 책을 읽기 쉽지 않다.
 ③ ㉢: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④ ㉣: 오늘은 날씨가 운동을 하기 좋다.
 ⑤ ㉤: 나는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6. EBS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장이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겹문장이지요. 그런데 ‘예쁜 꽃이 피었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가 결합한 겹문장입니다. ‘꽃이 예쁘다.’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만들어진 관형절이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에 안겨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예를 더 들어 볼까요?

학생: ‘㉠’를 들 수 있습니다.

- ① 주차장에는 큰 자동차가 많다.
- ② 창밖으로 넓은 들판이 보인다.
- ③ 귀여운 아기가 췌근췌근 잔다.
- ④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⑤ 빨간 옷이 친구에게 잘 어울린다.

7. EBS <보기>의 설명을 참조하여 ㄱ~ㅁ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절이 모여 한 문장이 될 때, 두 절의 공통되는 요소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그러한 특성을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 ㄱ. 광호는 착하고 슬기롭다.
- ㄴ. 홍래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준하가 싫어한다.
- ㄷ. 나는 아침마다 이를 닦지만, 동생은 안 닦는다.
- ㄹ. 나는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다.
- ㅁ. 그녀가 쓴 소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① ㄱ에서는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뒤 절의 주어를 생략하였군.
- ② ㄴ에서는 앞 절의 목적어와 뒤 절의 목적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뒤 절의 목적어를 생략하였군.
- ③ ㄷ을 보니 두 절의 공통되는 성분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ㄹ의 경우 현재의 주어를 ‘도서관에’ 바로 앞으로 옮겨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군.
- ⑤ ㅁ은 안긴문장의 부사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부사어를 생략하였군.



문 장 의 구 조

Step 2

8. <보기>에서 **출문장**으로 이루어진 속담을 모두 묶은 것은?

- ㉠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 ㉡ 밭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 한다.
-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9. <보기>의 ㉠ ~ ㉤을 **출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으로 분류하여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 ㉡ 선생님께서는 댁에 책이 많으시다.
-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 ㉤ 올가을에는 풍요로운 수확이 예상됩니다.

	출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0. <보기>의 ㉠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겹문장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어진문장은 다시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된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 ① 이 모자가 좋으면 네가 가져라.
- ②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다.
- ③ 그는 첼로를 전공하려고 음대에 진학했다.
- ④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 ⑤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엄마가 화를 내셨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문장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필수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나타난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문장을 홑문장,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겹문장에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 있고, 홑문장이 다른 문장속의 성분이 되는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 ①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다.
- ②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린다.
- ③ 찬물을 먹으니 이가 시렸다.
- ④ 밤이 오니 주위가 조용해졌다.
- ⑤ 철수가 오자마자 영희가 떠났다.



문 장 의 구 조

12. <보기>를 바탕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

접문장 중에는 둘 이상의 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져서 더 큰 문장을 이루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아서(어서)’, ‘-면’, ‘-고’ 등의 어미나 ‘와/과’ 등의 접속 조사에 의해 결합되며, 결합되어 있는 절들의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다음은 이어진 문장의 용례들이다.

ㄱ. 순영이와 기수는 오래전부터 개를 기르고 있다.
 ㄴ. 순희와 영순이가 대구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다.
 ㄷ.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영호가 밀고, 순철이가 끌었다.
 ㄹ. 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ㅁ. 형수가 음식을 나르고 형이 손님을 맞아 안내를 했다.

자료		탐구 내용
①	ㄱ →	접속 조사 ‘와’에 의해 이어진 문장은 홑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장의 의미가 발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②	ㄴ →	주어가 접속 조사 ‘와’에 의해 결합되었을 때, 부사어도 ‘와’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③	ㄷ →	앞절에 있는 문장 성분이 뒷절에서 반복되는 경우, 생략된 채로 이어진 문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④	ㄹ →	앞절이 뒷절에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어미를 그대로 사용한 채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⑤	ㅁ →	앞절과 뒷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경우, 앞절 전체를 뒷절 속으로 이동시키더라도 이어진 문장이 어법에 맞게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

사건이나 상태는 기본적으로 주어나 서술어로 표현된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 된다.

홑문장이 이어져 겹문장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홑문장과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다.

- 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② 정아는 얼굴이 예쁘다.
- ③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 ④ 다음 주에 가겠다고 하던데요.
- ⑤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14. <보기>에 제시된 ㉠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형이 아주 훌륭한 대학생이 되었다.
 - ㉡ 저의 동생은 모형 자동차가 꽤 많아요.
 - ㉢ 선생님께서는 네가 발표를 맡기 바라신다.
 - ㉣ 형은 피아노를 치고 누나는 노래를 불러요.

- ① ㉠과 ㉡은 둘 다 겹문장이다.
- ② ㉠과 ㉡에는 부사어가 있고, ㉢과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③ ㉢에는 목적어가 한 개 있고, ㉣에는 목적어가 두 개 있다.
- ④ ㉢은 안은문장이고 ㉣은 이어진문장이므로 모두 겹문장이다.
- ⑤ ㉠ ~ ㉣ 중 보어와 관형어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은 ㉠뿐이다.



문장의 구조

15. ㉠~㉣을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는 오늘 집에서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를 하였다.
 ㉡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오늘은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다.

- ①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② ㉠의 '선생님께서 내 주신'은 '숙제'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③ ㉡의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은 겹문장이 된다.
 ④ ㉢의 '의미 있는'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⑤ ㉢은 '특별한 ~ 없었지만'과 '오늘은 ~ 하루였다'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글을 쓸 때 문장의 길이를 줄이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개의 홑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두 홑문장 중 특정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가 이를 잘 보여 준다.

- ㉠ 아기가 곧히 잠을 잔다. + ㉡ 엄마가 아기를 안아 주었다.
 → ㉣ 엄마가 곧히 잠을 자는 아기를 안아 주었다.

- ① ㉠이 ㉡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② ㉠이 ㉡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③ ㉠이 ㉡에 명사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④ ㉠이 ㉡에 명사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⑤ ㉠이 ㉡에 부사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17.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지호는 키가 크다.
 ㉡ 지호는 키가 크기로 유명하다.
 ㉢ 지호는 친구들과 달리 키가 크다.
 ㉣ 키가 큰 지호는 친구를 잘 돕는다.
 ㉤ 영지가 지호는 키가 크다고 말했다.

- ① ㉠의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였고, ㉡의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였다.
 ② ㉠의 ‘지호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고, ㉤의 ‘영지가’는 안은문장의 주어이다.
 ③ ㉡의 ‘키가 크기로’와 ㉢의 ‘친구들과 달리’는 모두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④ ㉢의 ‘키가 크다’는 안긴문장이고, ㉣의 ‘키가 큰’은 안은문장이다.
 ⑤ ㉢은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서로 다르고, ㉤은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같다.

18.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 탐구 학습을 진행하였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제기	국어에서 관형절의 시제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관형절의 유형	㉠ 학생들이 최근에 <u>즐거</u> 듣는 음악이 뭐니까? / 어제 내가 <u>들은</u>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 있어. / 일곱 시가 <u>해가</u> 뜬 시간이다. ㉡ 언니가 요즘 <u>바쁜</u> 것은 시험 때문이다. / 눈이 <u>예쁜</u> 사람은 마음도 곱다. ㉢ 여기가 그 <u>높이 솟은</u> 곳이다. / 여기가 그 <u>높이 솟던</u> 곳이다. ㉣ 거기는 내가 자주 <u>가던</u> 곳이다. / 거기는 내가 자주 <u>갔던</u> 곳이다. ㉤ 이제는 다 <u>자랐을</u> 손자 <u>높이</u> 보고 싶다. / 바빠서 먼저 <u>갈</u> 사람은 가도 돼.

- ① ㉠을 통해 동사에서는 ‘-는’이 현재 시제를, 그리고 ‘-은/ㄴ’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② ㉡을 통해 형용사도 ‘-은/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③ ㉢을 통해 과거 시제의 ‘-은/ㄴ’은 ‘-던’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행위가 마저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④ ㉣을 통해 ‘-던’은 과거형 어미 ‘-었-’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⑤ ㉤을 통해 ‘-을/ㄴ’은 추측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 주는 기능을 가지는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문장의 구조

19. <보기>의 ㉠, ㉡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0 •

㉠ 저곳이 우리가 입학할 대학이다.

주어 +

주어 + 서술어

㉠

+ 서술어

㉡ 나는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주어 +

㉡주어+ 서술어

+

㉢주어+ 서술어

㉡

+ 서술어

- ① ㉠의 ㉠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② ㉠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③ ㉡의 ㉡와 ㉢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④ ㉡의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의 ㉠과 ㉡의 ㉡는 안긴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20.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영희가 철수와 만났음이 분명하다.

(나) 영희가 밥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 영희가 동생이 산 책을 읽었다.

(라) 영희가 목이 쉬게 소리를 질렀다.

(마) 영희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바) 영희가 밥을 먹기가 어렵다.

- ① (가)와 (나)의 안긴문장은 종류가 다르고 안은문장에서의 문장성분도 다르다.
- ② (나)와 (다)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으나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의 여부가 다르다.
- ③ (다)와 (마)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④ (라)와 (마)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다르나 안은문장에서의 문장성분은 같다.
- ⑤ (마)와 (바)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같으나 안은문장에서의 문장성분은 다르다.

21. <보기>의 ㉠ ~ ㉣을 재료로 하여 (가) ~ (다)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민희가 마음씨가 착하다.
 ㉡ 민희가 인기가 많다.
 ㉢ 아빠가 케이크를 사 오셨다.
 ㉣ *나는 기대했다.
 ㉤ 영수는 케이크를 먹었다.

- (가) 마음씨가 착한 민희가 인기가 많다.
 (나) 나는 아빠가 케이크를 사 오시기를 기대했다.
 (다) 영수는 아빠가 사 오신 케이크를 먹었다.

*는 비문법적인 말임.

- ① (가): ㉠이 주어가 생략된 채로 ㉡에 관형사절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② (나): ㉣이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에 명사절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③ (다): ㉤이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목적어가 생략된 채 ㉢에 관형사절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④ (가), (다): ㉠, ㉤이 각각 관형사절로 안기면서 결합된 각각의 관형사형 어미는 형태가 같지만 시제적 의미는 다르다.
 ⑤ (나), (다): ㉣이 ㉢과 ㉤에 각각 필수 성분으로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문 장 의 구 조

22. (가)~(마)에서 알 수 있는 국어 문장의 제약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가) ㄱ. * 그는 자기 형은 여행 간 사실을 몰랐다.
 ㄴ. * 사촌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ㄷ. 비는 오고 바람은 불지 않는다.
- (나) ㄱ. 어리석게도 영수는 영희가 우등생이라고 믿었다.
 ㄴ. 영수는 어리석게도 영희가 우등생이라고 믿었다.
 ㄷ. * 영수는 영희가 어리석게도 우등생이라고 믿었다.
- (다) ㄱ.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ㄴ. * 그가 우리는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ㄷ. 코끼리는 코가 길다.
 ㄹ. 코가 코끼리는 길다.
- (라) ㄱ. 이 옷은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 주신 것이다.
 ㄴ. 농부들이 하루 종일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 (마) ㄱ. 영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 영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영희는 노래를 불렀다.
 ㄷ. 열이 나면서 머리가 지끈거린다.

- ① (가) : 안긴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주격 조사 대신에 조사 ‘은, 는’이 오기가 어려운데, 대등절과는 달리 종속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② (나) : 문장 전체와 관련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자리 옮김이 자유롭지만, 상위문의 부사어는 안긴문장 안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없다.
- ③ (다) : 서술절을 안긴문장의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상위문의 주어가 서술절 안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서술절은 다른 안긴문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 ④ (라) : 주어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안긴문장 속의 주어에 쓰인 주격조사는 생략할 수 없다.
- ⑤ (마) : ‘-면서’에 의한 이어진문장은 주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정답 및 해설

- 1) **답 ② [이어진 문장의 이해]** ‘날이 더워지자 냉방 기계가 잘 팔렸다.’에서의 ‘-자’는 나열이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일이 원인이나 동기가 되어 뒤의 일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자’가 ‘그는 화가이자 시인이다.’에서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함께 다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낼 때에는 나열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문 ①** ‘-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산은 따뜻하다.’와 ‘서울은 춥다.’는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문 ③** ‘-지만’은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조의 의미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몸은 늙었다.’와 ‘마음은 젊다.’가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문 ④**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그는 공부도 잘한다.’와 ‘그는 운동도 잘한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문 ⑤** ‘-며’는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나열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은 사과이다.’와 ‘저것은 포도이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
- 2) **답 ⑤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더라도’는 선어말 어미 ‘-겠-’과는 결합할 수 없지만, ‘-았-/-었-’과는 결합할 수 있는 어미이다. 예를 들어, ‘읽었더라도, 보았더라도’가 가능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선지에 쓰인 ‘-도록, -고자, -려고, -러’는 선어말 어미 ‘-았-/-었-’, ‘-겠-’ 중 어느 것과도 결합할 수 없다.
- 3) **답 ② [문장의 짜임새 파악]** ㉠의 주어는 ‘내가’이고 ㉡의 주어는 ‘내가 쓴 보고서가’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의 주어는 ‘대표가’이고 ㉣의 주어는 ‘우리가’이므로 역시 동일하지 않다. **문 ①** ㉠이 수식하는 명사 ‘보고서’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였고, ㉢이 수식하는 명사 ‘대표’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였다. **문 ③** ㉠과 ㉢이 생략되어도 ㉡과 ㉣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 **문 ④** ㉡은 ‘내가 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음’과 결합하여 명사절을 이루었고, ㉣은 ‘우리가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을 이루었다. **문 ⑤** ㉡과 ㉣은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답 ③ [결문장의 종류 구별]** ㉠과 ㉡에는 모두 ‘저 사람이 진범임’이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다만, ㉠의 명사절은 안은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며, ㉡의 명사절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문 ①** ㉠은 ‘주어 + 보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며, ㉡은 서술절 ‘얼굴이 변했다’가 안겨 있는 결문장이다. **문 ②** ㉠과 ㉡에는 모두 ‘눈이 오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는데, ㉠과 달리 ㉡의 명사절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되었다. **문 ④** ‘내가 (*소식을) 늦었다는’과 ‘내가 (소식을) 모르는’을 비교해보면 ㉠과 달리 ㉡의 관형절에는 안은문장의 목적어 ‘소식’이 생략되어 있다. **문 ⑤** ㉠과 ㉡에는 모두 ‘이 문제를 풀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는데, ‘풀기(가) 어렵다’와 ‘풀기(를) 바란다’를 비교해 보면 ㉠은 명사절이 안은문장의 주어 기능을 하고 ㉡은 명사절이 안은문장의 목적어 기능을 한다.
- 5) **답 ④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운동을 하기’가 조사와 결합하지 않았으나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 ①** ‘형이 거짓말을 했음’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문 ②** ‘그 책을 읽기’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문 ③** ‘그가 돌아오기’가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문 ⑤** ‘(내가) 귀국하기’가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문장의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 6) **답 ④ [결문장의 종류 구별]**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아니라 홑문장이다. 이 문장에서의 ‘모든’은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의 뜻을 지니는 관형사이므로, ‘모든’을 관형절로 보기 어렵다. **문 ①** ‘자동차가 크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큰’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문 ②** ‘들판이 넓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넓은’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문 ③** ‘아기가 귀엽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귀여운’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문 ⑤** ‘웃이 빨강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빨간’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 7) **답 ⑤ [문장 성분 분석]** ㄱ에서 안긴문장은 ‘그녀가 (소설을) 쓴’인데 안긴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소설’이다. 따라서 안긴문장의 부사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부사어를 생략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문 ①** ㄴ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모두 ‘광호는’이기 때문에 뒤절의 주어를 생략하였다. **문 ②** ㄴ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목적어가 모두 ‘고양이를’이기 때문에 뒤 절의 목적어를 생략하였다. **문 ③** ㄷ에서는 ‘아침마다’라는 부사어와 ‘이를’이라는 목적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뒤 절에서는 생략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되는 성분이 여러 개인 경우에 여러 개가 생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④** ㄹ의 경우 ‘나는’을 ‘도서관에’ 앞에 써도 자연스럽다.
- 8) **답 ③ [문장의 종류 구분]** ㉠에서 주어는 ‘바늘 도둑이’이고 서술어는 ‘된다’이다. ㉢에서 주어는 ‘개구리’이고 서술어는 ‘한다’이다. 따라서 ㉡,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문 ①**은 ‘핑계 없는’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은 ‘발 없는’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은 ‘가는 말이 곱다’와 ‘오는 말이 곱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 ㉡, ㉢은 결문장이다.
- 9) **답 ③ [문장의 구조]** ㉠은 ‘인생은 짧다’와 ‘예술은 길다’가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은 ‘선생님께서’는 주어이고 ‘책이 많으시다’가 서술절로 안겨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은 ‘(술



문장의 구조

있이) 바스락거린다고'가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㉔은 '주어+서술어'관 계가 한 번만 나타난 홀문장이며, '나만의 삶', '나만의 방식'은 관형어가 명사를 꾸며 주는 명사구이지 안긴절이 아니다. ㉔은 주어가 생략된 '풍요로운'이 '수확'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안은 문장이다.

10) ㉔ ④ [문장의 종류 구분] '비가 억수같이 퍼붓다'와 '바람이 심하게 분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적 연결 어미 '-고'가 쓰였다. ㉔ ① '이 모자가 좋으면'이 종속절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 연결 어미 '-으면'이 쓰였다. ② '어부는 고기를 잡으려'가 종속절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 연결 어미 '-으려'가 쓰였다. ③ '그녀는 첼로를 전공하려고'가 종속절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 연결 어미 '-려고'가 쓰였다. ⑤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가 종속절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 연결 어미 '-자'가 쓰였다.

21) ㉔ ① [문장 / 문장의 종류] <보기>를 바탕으로 답지의 문장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①은 앞뒤의 문장 '하늘은 높다'와 '바다는 넓다'가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나머지 문장과 다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㉔ ② 조건의 관계로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④ 인과의 관계로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동시 동작의 관계로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22) ㉔ ⑤ [이어진문장의 종류 파악]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앞절이 뒷절 속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가 없다. ㉔의 경우, 앞절인 '형수가 음식을 나르고'를 뒷절 속으로 놓으면 '형이, 형수가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아 안내를 했다.'와 같이 된다.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그리고 '형이 손님을 맞아, 형수가 음식을 나르고 안내를 했다.'와 같이 이동을 해 문장을 만들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되기는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문장이 기존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㉔ ① ㉔은 순영이와 기수가 각각 오래전부터 개를 기르고 있다는 의미 외에도 순영이와 기수가 공동으로 오래전부터 개를 기르고 있다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② ㉔에서는 주어인 '순희', '영진' 외에 부사어인 '대구에서'와 '부산에서'도 접속조사 '와'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㉔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어진문장이 형성된 것이다. ③ ㉔의 경우, '자전거를'이 뒤에 이어져 있는 절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된 채 이어진문장이 형성된 것이다. ④ ㉔처럼 앞절과 뒷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문장을 이어 주는 연결어미인 '-아서'를 그대로 사용한 채로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아직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와 같이 의미가 온전하지 못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13) ㉔ ① 밑줄 친 부분은 안은 문장에 대한 설명이므로 홀문장이거나 이어진 문장을 찾으면 된다. ①의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봄이(주) + 오다(서)'와 '꽃이(주) + 피다(서)'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4) ㉔ ③ [문장성분과 문장의 구조] ㉔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바라신다'인데 이것의 목적어는 명사절로 안긴 '네가 발표를 맡기'이다. 목적격 조사 '를' 없이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또 ㉔의 안긴절은 '네가 발표를 맡기'이고 안긴절 속의 목적어는 '발표를'이다. 그러므로 ㉔에는 목적어가 두 개 있다. ㉔에서는 '피아노를'과 '노래를'이 목적어이다. ㉔ ① ㉔과 ㉔은 모두 겹문장이다. ㉔에는 주어가 생략된 '아주 훌륭한'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고, ㉔에는 '모형 자동차가 꽤 많아요'가 서술절로 안겨 있다. 즉 ㉔ 전체 문장에서 '저의 동생은'이 주어, '모형 자동차가 꽤 많아요'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② ㉔에서는 관형사절 속의 '아주'가 '훌륭한'을 꾸미는 부사어이다. ㉔에서는 '꽤'가 '많아요'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㉔과 ㉔에는 부사어가 없다. ④ ㉔은 명사절 '네가 발표를 맡기'를 안은 문장이고, ㉔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안은문장, 이어진문장 모두 겹문장이다. ⑤ 보어는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으로서 ㉔에서는 '아주 훌륭한 대학생 이'가 보어이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이 '대학생'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㉔~㉔에는 보어가 없다. 한편, ㉔에서는 '저의'가 '동생'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모형 자동차'에서도 '모형'이 '자동차'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그러나 ㉔, ㉔에는 관형어가 없다.

25) ㉔ ④ [문장의 종류 구분] ㉔의 '오늘은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다.'에서 '의미 있는'을 서술절로 볼 수 없다. '의미 있는'은 '하루'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㉔ ① ㉔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나는'과 '하였다', '선생님께서'와 '내주신'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② '선생님께서 내 주신'은 명사 '숙제'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다. ③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온 가족이 모여'와 '(온가족이) ~ 하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 된다. ⑤ ㉔은 '특별한 ~ 없었지만'과 '오늘은 ~ 하루였다'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어진문장이다.

16) ㉔ ① [문장의 종류 구분] ㉔ ① '아기가 곧히 잠을 잔다.'가 ㉔에서 '곧히 잠을 자는'으로 안겨 있다. 즉, ㉔이 ㉔에 관형절로 안긴 것이고 그 과정에서 ㉔의 주어인 '아기가'가 생략되었다.

17) ㉔ ③ [안긴문장과 안은문장 이해] ㉔의 '키가 크기'는 '로'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㉔의 '친구들과 달리'는 부사절로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㉔ ② ㉔의 '지호는'과 ㉔의 '영지가'는 모두 안은문장의 주어이다.

18) ㉔ ③ '숨은'은 숨는 행위가 완료되어 현재 그곳에 숨어 있는 상태임에 반해, '숨던'은 그곳에 숨는 행위가 중단되어 현재는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마저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황을 나타내는'것은 '-던'이다.

29) ㉠ ① [결문장의 구조 분석] ㉠ ㉡의 A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A는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로서, 관형절을 만드는 어미 ‘-ㄹ’이 쓰였다.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저곳이’와 안긴 절의 주어 ‘우리가’는 서로 다르므로 둘 다 나타나 있다. ㉢ ㉣의 ㉤와 ㉥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다’와 ‘㉥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다’는 서로 대칭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들은 ‘나열’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의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에서 ㉥의 주어는 ‘네가’인데, ㉤에 동일한 주어가 사용되어 있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 ㉣의 A와 ㉣의 B는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 ㉣의 A는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이며, ㉣의 B는 명사절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이다. 따라서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30) ㉠ ③ [문장의 구조] (다)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영희이다. (마)는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가 모두 영희이다. ㉢ ㉠ (가)의 안긴문장은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며, 안은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 (나)와 (다)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의 안긴문장은 동격 관형절이고 (다)의 안긴문장은 관계 관형절이다. ㉣ (라)의 안긴문장은 부사절로 안긴문장이고 (마)의 안긴문장은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다. 그러나 (라)의 부사절과 (마)의 명사절은 안은문장 내에서 모두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 (마)와 (바)의 안긴문장은 모두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다. 그러나 (마)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바)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21) ㉠ ⑤ [문장 구조] (나)에서 ㉢은 ㉢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안겨 들어갔으나 (다)에서 ㉢은 ㉢에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로 안겨 들어갔다. (나)의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지만 (다)의 관형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 ㉠ ㉣의 주어는 ‘민희가’인데 ㉣이 ㉢에 관형사절로 안길 때 주어 ‘민희가’가 생략되었다. (가)의 관형사절에 있는 주어 ‘마음씨가’는 ㉣의 서술절 속의 주어이지 ㉣의 주어가 아니다. ㉡ (나)에서 명사절 ‘아빠가 케이크를 사 오시기’에는 ㉢에 있는 주어가 그대로 들어 있다. ㉢ (다)에서 ㉢이 관형사절 ‘아빠가 사 오신’으로 안기면서 목적어 ‘케이크를’이 생략되었다.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케이크’이기 때문이다. ㉣ (가)의 ‘마음씨가 착한’은 ㉣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이고 (다)의 ‘아빠가 사 오신’은 ㉢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이다. 두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같지만, 앞의 것은 형용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고 뒤의 것은 동사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문법적(시제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가)의 관형사절에는 주어가, (다)의 관형사절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31) ㉠ ④ (라)에서 “나. 농부들이 하루 종일 비 오기를 기다렸다.”처럼 안긴문장 속의 주어에 쓰인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통사적인 차이를 보인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자리를 바꾸면 커다란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즉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앞뒤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은 앞뒤 절이 독립적이어서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조’나 ‘주제’의 보조사 ‘은/는’이 결합될 수 있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다음 예문의 (나)와 같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달리 (가)와 같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은/는’의 결합이 가능한 것도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 *봄이 오면 꽃은 핀다. ㉡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 그러나 상위문의 부사어가 안긴문장 안으로 자리를 옮기면 수식의 범위가 달라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거나 어색한 의미가 된다. ㉢ 이중주어문을 서술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서술절을 안긴문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출제된 선택지이다. 서술절의 경우는 상위절의 성분이 성분절의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명사절이나 관형사절과 달리 그것이 가능하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 코가 코끼리가 길다) ㉤ ㉣의 ‘-면서’는 어떤 일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일을 한다는 ‘동시성’의 의미이므로 행위의 주체인 주어는 동일해야 한다.